"전남~제주 해저터널 서둘러야"

이건철 全發硏 연구위원, 새만금·亞문화도시 등 연계 中 관광객 유치 최적

광주·전남·북과 제주를 아우르는 호남 경제권이 동북아 해양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려면 전남~제주를 잇는 해저 터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1 지역발전주간' 세미나에서 '서울~무안국제공항~제주간 고속철도 호남경제권 상생 프로젝트'라는 발제문을 통해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이미 개발된 제주권 관광자원과 현재 조성중인 전북 새만금·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해양 관광 최적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 등 호남경제권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해양 관문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지로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제주를 비롯, 새만금지구·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연계한 관광전략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도서 특성상 현행 항공기 및 선박 위주의 관광객 유치 전략은 한계가 있다"면서 "기상 영향을 받지 않는 해저터널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이 내놓은 방안은 서울~목포까지는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목포~해남은 2차로 도로와 철도 복선을 병행하며, 해남~완도 보길도는 해상 교량으로, 보길도~추자도~제주도 구간에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는 구상이다.〈개념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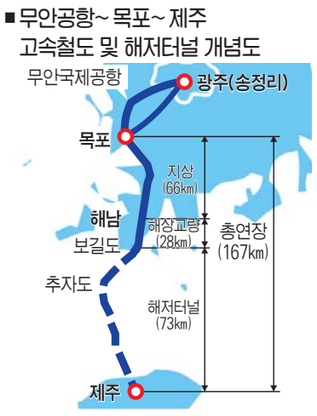
총 사업비는 14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제주 최근 관광객이 2년 연속 500만명을 넘어섰고, 새만금 관광단지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만큼 해저터널 개통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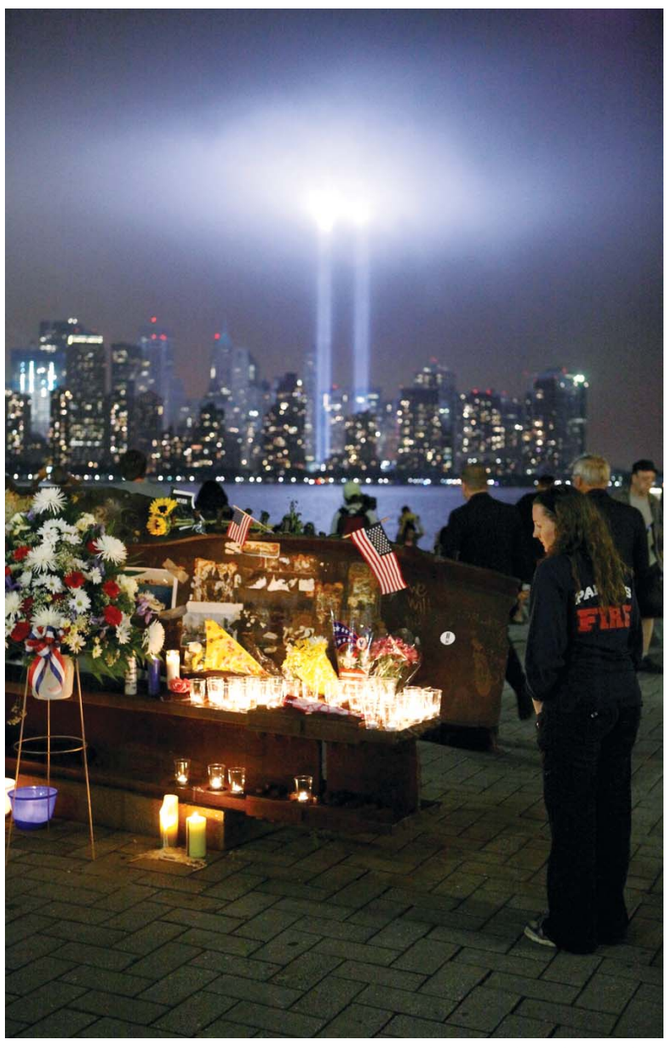
이 연구위원은 교통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저터널 완공시 기존 항공기 이용자의 78%가 해저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완공된 2026년에는 1494만명, 2031년 1753만명, 2036년 2000만명의 관광객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해저터널 건설은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수도권 및 역내 거점간 접근성을 높여 관광교류 촉진 및 제조업·농업 부문에서도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공항~목포~제주 고속철도 및 해저터널 개념도





9·11 테러 10주년 추모식 9·11 테러 10주년을 맞은 11일 미국 각지에서 당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인파가 몰렸다. 테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저지 시티 허드슨 강가의 추모객들. /연합뉴스

보조금 부당사용 6건 1억8천만원 환수 당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농림수산식품 관련 민간단체가 12곳에 이르며, 부당집행 금액은 3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2개 민간단체가 농식품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부당집행 금액은 3억4695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억8496만원이다.

단체별로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6건을 지적받아 1억8916만원을 환수당했고,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가 9건의 지적을 받아 6036만원을 환수당했다. (사)한국수산회는 1071만원(3건)을 환수당했다.

부당집행 내역은 행사보조금이나 홍보사업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과급이나 출장비, 수당 등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황 의원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수산업 관련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위공무원 배출 명문고 줄고 특목고 늘 듯

이용섭 의원, 자사고 등 일부지역 편중 교육정책 대수술 필요

대한민국 주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 상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출신 고등학교가 경기고, 경북고 등 평준화 전 명문고에서 20년 후에는 특목고와 자율형 공·사립고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국 특목고와 자사고 중 수도권과 영남 지역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최근 3년간 고위공직자 상위 20개 출신 고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30일~2011년 6월30일까지 고위공직자를 배출한 상위 20개 고교 중 전통 명문고로 불리는 경기고·경북고·광주제일고·전주고·경복고·서울고 등의 고위공무원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고 21명 ▲경복고 13명 ▲서울고 10명 ▲광주제일고 9명 ▲경북고 7명 ▲전주고 6명 ▲부산고 6명 등이 줄었다. 이 기간 중 고위공무원 수가 늘어난 고교는 청주고와 중앙고 2개에 불과했다.

대학 출신별로는 SKY대 대학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1485명 중 427명(28%)이 서울대 출신이고, 연세대 133명, 고려대 125명 등이었다. 평준화 전 명문고 출신들의 고위공무원 진출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데 반해 SKY대 출신 비중은 고교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의 SKY대학 합격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일반계 고교 출신 보다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의 고위 공무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서울대 합격자 상위 20개 학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사고였다. 서울예술고 대원외고 세종과학고 등 특목고가 15개, 민족사관고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가 5개를 차지했다. 일반고는 한 곳도 없었다.

문제는 전국 특목고와 자사고 249개 학교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 지역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고위공직자 역시 특정 지역 출신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강술래, '국민댄스'로 거듭난다

전남도, 남도 소리·춤동작 현대적 재해석

전통문화예술인 강강술래가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민 댄스'로 거듭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강술래 국민 생활댄스'는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발했으며 강강술래의 원형을 현대화해 누구나 쉽게 익히고 따라할 수 있는 생활체육콘텐츠로 변모시켰다.

남도의 소리와 춤동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청소년층의 기호에 맞춰 세계적인 비보이 안무가인 김덕현씨와 유명 가수의 편곡을 맡은 성낙호씨가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강강술래 생활댄스의 운동효과 연구결과 시간당 408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감소, 근지구력, 유연성, 교우관계 개선 등 다양한 효과도 입증됐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강강술래 국민 생활댄스'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TV광고와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댄스가 주는 즐거움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군무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대형LED 전광판을 통해 강강술래 군무동작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다음달 1일 2011 명량대첩 기간에는 전국 경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佛 핵폐기물처리장 폭발 5명 사상

1명 사망·4명 부상… 방사성 물질 누출 없는 듯

동일본 대지진 발생 6개월 하루만인 12일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도시 님 인근의 마르쿨 원전단지 인근 핵폐기물 처리센터에서 터진 폭발사고는 한 주일을 막 시작한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킨 소식이었다.

프랑스는 58기의 원자로에서 국내 전력의 75%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날 사고는 오전 11시45분께 프랑스전력(EDF)의 자회사인 핵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소코데이(SOCODEI)의 상트라코 센터에서 가동되던 한 소각로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은 밝혔다.

폭발에 뒤이어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과거 소형 원자로가 몇 기 가동됐다 폐쇄된 상태라는 소식과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설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프랑스 남부 원전 폭발사고

뉴스 전문채널인 BFM TV가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고, 해당 지역 격리 조치와 주민 대피령 여부에 관한 소식들도 외신들을 통해 속속 들어왔다.

사고가 난 핵폐기물 처리센터를 자회사로 둔 프랑스전력(EDF)의 주가는 2-3% 하락한 선에서 움직이다 곧장 7.6%까지 곤두박질 칠 정도였다.

주무부처인 프랑스 산업·에너지부와 원자력안전청(ANS)은 물론이고 내무부와 경찰, EDF 등 관계부처와 업계가 총동원돼 사고 실체 파악을 하느라 분주했다.

결국 이 폭발사고는 주무관청인 ANS이 "폭발 사고가 난 소각로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용해시키던 것으로,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발생 4시간여 만에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1호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碍)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둥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를테면, 집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지며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허(心脾兩虛), 심신불교(心腎不交), 위중불화(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공황발작의 증상의 특징은 첫째는 예기치 않던 중에 아무런 특별한 자극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과 그 발작이 보통 길어야 10분 정도로 짧다는 것과 몇가지 특수한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2) 땀을 흘림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눌리거나 졸리는 감각)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불안정감,머리 멍함 또는 졸도)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방에서는 공황장애를 마음속에 응어리진 갈등 즉 울화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처방으로는 보혈안신제인 보혈안신탕이나, 소간해울제인 소간해울탕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 한사람을 실제로 치료할 때 어떤 치료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어떤 것을 택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환(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공황장애의 치료는 진단과정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치료방법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안내 • 홧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